



박정규 지회장

최재수 부지회장

신중현 부지회장

지역조직 활성화가 발전의 토대

서울 북부지회

사실 북부지회의 지역 기반은 서울의 중심부가 아니고 인구 밀집도가 떨어져 취약한 상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회가 지금의 성장된 모습과 회원 상호간의 굳은 결집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끈끈한 친목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 체계에 있다.

산은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든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자연을 연상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산인 것도 산만이 가진 포용력과 넉넉함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산 가까이 산과 함께 자연의 일부가 돼 살아가는 사람치고 모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 옛날 보릿고개라 일컬어지는 어렵던 시절. 굶은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함께 하며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나누는 우리네의 훈훈한 인정도 자연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까닭에서 연유한다.

이처럼 산의 넉넉함 그 자체로 서로를 이끌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다져가고 있는 곳이 있다.

도봉산 가까이서 이 산처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언제나 고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있는 서울 북부지회(지회장 박정규)가 바로 그곳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서울 북쪽 지역에 위치한 북부지회는 도봉구와 노원구 2개 구(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동만 해도 도봉구의 29개 동과 노원구의 13개 동으로 타 지회보다 넓다. 그러나 북부지회가 오늘날이 있기까지 출발부터 순조로왔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북부지회가 처음 태동한 것은 1975년 5월로, 인접한 성북지회에서 18개

회원이 따로 독립하면서 부터였다.

따라서 북부지회의 초창기는 어려움 그 자체였다. 독립 당시 등산기와 간단한 몇개의 책상, 거울이 지회 살림의 전부였으며, 자체 사무실은 엄두도 못내고 회원의 개인 사무실을 빌려 쓰는 형편이었다. 이런 형편이고 보니 지금의 수유동 도봉구청 옆 사무실도 초기 창립 이사진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십시일반으로 마련해야 했다.

현재 2개 구 42개 동을 관할하는 북부지회는 32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 18개 회원으로 시작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부지회의 성장이 남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기반에서 이룩한 성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부지회의 지역 기반은 서울의 중심부가 아니고 인구 밀집도가 떨어져 취약한 상권이다. 이에 따라 회원 업소도 산재돼 있는 편이며, 업주와 부인이 생산과 판매를 담당할 정도로 영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회가 지금의 성장된 모습과 회원 상호간의 굳은 결집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끈끈한 친목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 체계에 있다.

현재 북부지회는 지회 아래 지역별로 1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독특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 도봉구의 9개 조직과 노



박종배 이사



정영태 이사

원구 3개 조직으로 이루어진 각 분회는 앞서 밝힌 바 있는 북부지회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별로 지역장 1명과 총무 1명이 담당함으로써 단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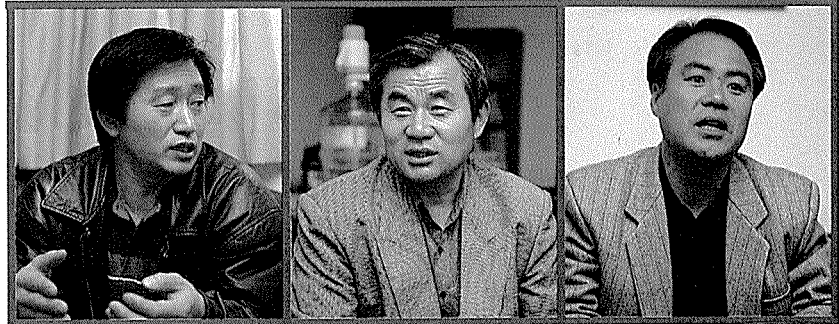
통상 20여개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매월 1회 간담회를 통해 협회나 관청의 지시 사항 또는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회에서 각 지역 조직으로 전화 한통이면 어떤 내용의 협조 사항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지역 조직이 가지는 다른 장점은 그 어느 곳도 따를 수 없는 회원간의 친목의 힘이다. 지역마다 20여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너나 없이 따로 남이 없을 정도이다.

이 12개의 각 지역 조직은 매년 신년회 및 망년회 모임을 비롯해 봄 가을 정기적으로 야유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사실은 야유회 행사로 타 지회 및 지부와 달리 업주뿐만 아니라 부인들끼리의 행사나 모임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소 특성상 부부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많은 만큼 돌아가면서 한번은 업주들끼리 또 한번은 부인들끼리 야유회를 가짐으로써 친목을 다지고 있다. 현재 북부지회 각 지역에서는 별도의 부인 모임이 있어 생일날 반지 등을 교환하는 등 타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친목을 과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북부지회의 회원간의 단결과 친목은 견고하기로 정평이 나왔다. 흔히 근처에 같은 업종의 업소가 있으면 껄끄러운 사이가 보통이지만 북부지회에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제품을 만들던 중 재료가 떨어지면 근처 업소에서 빌리러 가고 또 기계가 빌려 주는 예는 북부지회에서 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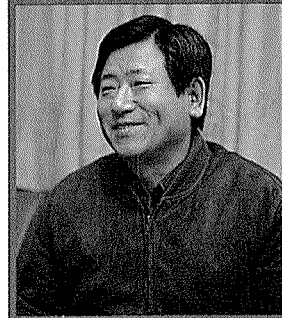
이 정 모 이사

이 호 창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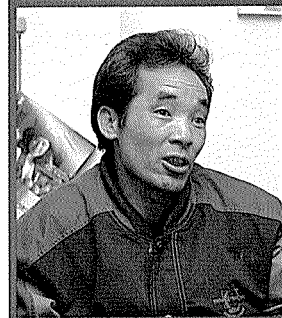
김 귀 래 이사



황 무 진 이사



조 만 휘 이사



김 태 현 이사



안 종 환 이사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런 친목을 토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과우친목회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 모임체인 과우친목회는 총 4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93년 3월 결성 이후 매월 1인당 회비 3만원씩을 적립해 2천만원 기금을 조성, 상호간 친목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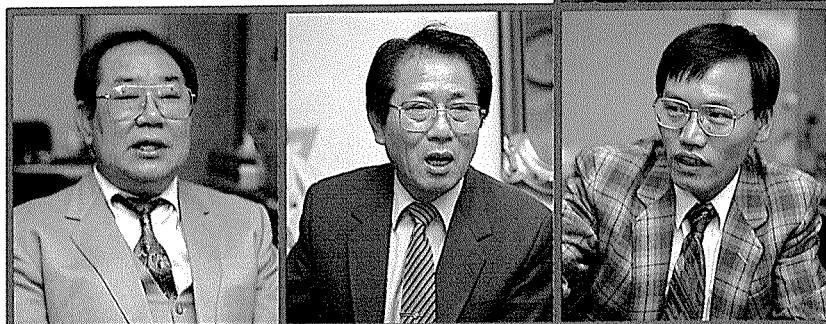
앞서에서도 알 수 있듯 북부지회의 외적 여건은 타 지회나 지부보다 열악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북부지회는 이런 불리한 여건을 통해 오히려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부지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고객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 회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할 지역 내 새로 문을 연 감성업 제과 학원을 이용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개발되는 신제품을 회원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 조직이 활성화 되는 데는 상하간의 긴밀한 협조가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북부지회 각 지역 조직의 회원간의 끈끈한 화합과 친목은 큰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층부를 이루는 지회 이사진 역시 중년층은 발전의 길잡이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젊은층은 이를 토대로 진취적으로 지회를 이끌음으로써 활기찬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북부지회의 발전과 변화를 점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목을 통해 보여준 단결의 힘과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북부지회 상하간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는 확신때문이다. <글 박종선> [K]



나 동 진 과우친목회장

성 낙 관 상무

임 이 태 총무